

오리고기 소비량 급감 대책마련 절실

예년에 비해 오리고기 소비량이 크게 줄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리고기 유통업계에 따르면 여름철 북경기에는 평상시 보다 소비량이 증가하던 예년과는 달리 지난 초복의 경우 평상시와 다른없는 물량이 유통돼 북경기가 실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지역에서 생체오리를 유통하는 한 유통업자는 예년의 경우 북경기에 주당 10차정도의 생체오리를 유통시킨반면 올해에는 절반에 불과한 5차정도에 머물렀다며 평상시보다 유통물량이 다소 늘어났으나 예년에 비하면 경기가 없어진거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화성에서 오리고기를 유통하는 유통업자는 지난해 북경기때 일일 4백수의 오리를 작업했으나 이번 북때는 1백수 작업에 그쳤다며 북경기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강원도에서 오리고기를 유통하는 한 관계자는 유통물량이 예년의 1/3밖에 안된다고 오리고기 소비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같이 북경기가 실종된 것은 최근 부실금융권의 통폐합 조치등 사회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경제상황이 크게 나빠지고 있어 실물경제 위축에 의한 소비가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타축산물의 경우 경기불황에 따라 산지가격하락 등에 의한 최종소비자 가격이 내리고 있는데 반하여 오리의 산지가값은 역현상에 따라 유통업계의 유통상황이 불리하고 최종 소비자 가격 역시 내리지 못하는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소비위축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에대한 오리업계의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오리고기 소비량 감소에도 수입물 유통가격 크게 상승

오리고기 소비량 감소에도 수입산 룰의 유통가격은 전에 비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고기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입산 룰의 유통 가격이 Kg당 6천5백원에서 7천원 사이에 거래되어 전에비해 1천원~1천5백원이 높은 가격에 형성되고 있다.

이와같이 수입산 룰의 유통가격이 폭등한 것은 수입산 룰의 수입량이 크게 줄어든데다 국내 오리가격 역시 크게 올라 이를 대처할 물량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수입산 룰을 공급하는 수입업체는 수입가격 보다 Kg당 2천원 내외의 높은 마진을 붙인 가격으로 유통시켜도 이를 대처할 물건이 없어 유통업자

들은 이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이 심화되면서 최근 가공업체에는 국산 룰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으나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가공업체 한 관계자는 국산룰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은 쇄도하고 있으나 국내산 오리값이 현재와 같이 높은 구조에서는 룰을 만들 수 없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여름철 사양관리 포인트

(고품질 사료급여,더위스트레스 최소화에 역점)

최근 오리출하물량이 늘어나면서 육용오리 부족현상이 없어지고 사육농가의 출하일령이 지연되어 42-45일령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육용오리 출하일령이 늘어나면 출하체중 역시 증가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최근 출하되는 오리의 출하체중은 6월에 비해 결코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여름철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에 의한 더위스트레스로 사료섭취량이 줄어드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품질좋은 오리 생산은 사육농가의 경쟁력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현재와 같이 정상적인 오리출하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같은일령에서 출하체중이 높은 품질좋은 오리의 생산은 사육농가의 경쟁력과 농장경영을 호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름철 사육농가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더위에 의한 스트레스로 사료섭취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적은사료를 먹고도 빨리자랄수 있도록 고품질 사료를 급여하고 한꺼번에 많은 사료를 줄것이 아니라 여러번 나누어서 급여한다.

사료를 여러번 나누어서 급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료섭취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고온다습한 여름철의 사료가 부패되는 것또한 막을 수 있어 사료의 손실과 부패된사료섭취에 의한 질병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축사지붕위에 점적호스를 설치하여 일정한 시간대에 물을 뿌려주어 축사내 온도를 낮춰주는 것도 사료섭취량을 높이는 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이방법을 이용하면 축사내 온도가 약2도씨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밖에 신선한 물을 충분히 급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다.

7월1일 시행된 면세유류,까스 어떻게 공급받나

지난7월1일부터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사용중인 난방기에 면세유및 면세까스가 공급되고 있다. 공급되는 면세유는 지역과 공급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경기지역의 경우 면세경유의 공급가격은 리터당440원으로 일반경유 공급값 627원에 비해 187원이 저렴하다.

또 면세가스의 경우는 키로그램당 701원으로 일반가스 803원에 비해 102원이 싼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협 자재과에 가서 면세유류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된다. 이 경우 농가에서 사용중인 기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즉 난방기를 사용하는 경우 구입한 회사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되는데 중고난방기를 사용중이어서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농협과 지역영농회장 등을 대동하여 농장에서 사용중인 기기와 용량 등을 확인시켜주면 된다.

농가에서 사용중인 가스육추기 및 열풍기 역시 이같은 절차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가스의 경우 올해 처음 농가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배정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리사육농가에서 해당농협에 면세가스를 공급받기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해당군에 배정물량이 없으면 바로 공급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해당농협은 시군지부와 농협중앙회에 이를 요청하게되며 농협중앙회는 농림부에 이를 요청하고 농림부는 재정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오리사육농가에서 면세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농협에 공급신청서를 하루속히 제출해야 하루라도 빨리 면세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면세유류에 대한 공급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면세유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은 매년 9월말까지 이를 조사하여 농림부에 제출하게되며 농림부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해 공급할 면세유류의 총공급량을 확정하여 재정부와 협의하여 명년도 면세유류 공급물량을 배정받게 된다. 이점유념하여 회원농가는 해당농협에 빠짐없이 이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선진농장탐방/ 서산 성호농장편

(질병예방에 역점 출하율 97%대 유지)

월 육용오리 출하수수 2만8천수,주당새끼오리 입식수수 7천수,농장 월평균 육용오리 출하율 97%대 유지, 오리사육경력 10년, 국내 개별사육농가로는 최대의 육용오리사육농장, 월평균 총매출액 1억5천9백60만원,이상은 충남 서산시 고북면 봉생1구33번지에 소재한 성호농장(대표 손윤권)의 화려한 이력이다.

닭에 비해 대량소비 여건이 취약한 오리업계의 현실에서 성호농장이 이와같은 농장경영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는 사육에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세심한 사양관리,거래에 있어서는 철저한 신용위주의 거래등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원칙을 따르는데 있었다.